

# 권력 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된 남조선정치판



국민당 해체

말은 곧 사람의 품격이라고 한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과 취미, 지식수준과 수양정도를 알 수 있기때문일 것이다.

남조선에서 《1일1방언》, 《도리도리》, 《쩍벌》이라는 오명으로 불리는 윤석열이 최근 그의 인물을 드러내 보여 그의 인품을 알 수 있고 그런 인물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의 수준정도를 잘 알 수 있다.

...

《과거에는 후주사미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방류를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정치적차원에서 불 문제가 아니고 일본정부가 각국의 협의로 사람들이 의문을 품지 않

도록 국제적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7월 6일 대전과학기술원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만난 자리에서)

《세금은 경제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경제활동

은 위축되기때문에 걸어서 나누어줄거면 안걸는게 좋다.》(7월 1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7월 20일 《메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먹어서 병들지 않는다면 없는 사람들은 불량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7월 18일 《메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절절한 소리》가 나와 시민의 상심이 컸을 것이다.》(《COVID-19》가 초기

를 공유하며 병행해도 되는 것이며 많은 학생들이 대학 4학년과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입금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큰 의미가 없다.》(9월 13일 정경북도 안동에서 취업을 준비하고있는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

사람들앞에서 제 인기를 올려보려고 특 던지는 말마디마다 무식과 상식이하의 망연탄뿐이 아닌 이런 사고와 인민들에 대한 비호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9월 22일 《국민의힘》의 창당대회에서)

《손발로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인문학이냐는 건 공학이나 자연과학분야

남조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제야당이 라는 《국민의힘》간 《대선》을 둘러싼 아귀다툼이 날로 격화되는 속에 진보당,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까지 《대선》판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은 진보정당들과 민주로총이 《불평등체제타파》를 위한 민주로총, 진보정당 2022대선공동대응기구》라는것을 조직하고 《대선》을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통해 후보단일화까지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고 하면서 《진보연이 매년 대선을 앞두고 자체세력화를 꾀하고있다.》, 《5개 진보정당과 민주로총의 대선공동구축작은 기득권세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전하고있다.

한편 남조선의 각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실패와 각종 부정부패의혹에 대한 배신과 반발에 따른 선택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지난 《대선》

을 소유함》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혀있다.》(8월 1일 여의도에서 열린 청년정책토론회에서)

《내성적인응호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남녀사이

를 공유하며 병행해도 되는 것이며 많은 학생들이 대학 4학년과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입금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큰 의미가 없다.》(9월 13일 정경북도 안동에서 취업을 준비하고있는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

사람들앞에서 제 인기를 올려보려고 특 던지는 말마디마다 무식과 상식이하의 망연탄뿐이 아닌 이런 사고와 인민들에 대한 비호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9월 22일 《국민의힘》의 창당대회에서)

《손발로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인문학이냐는 건 공학이나 자연과학분야

## 《도리도리》의 망연기록

《무모한 무기개발이 군미경쟁을 초래했다》

남조선에서 당국의 무모한 호전적책동으로 북남선언들이 사문화되고 《세로로 안보불안》에 직면하였다는 불만과 비난이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최근 당국자가 잠수함탄도 미사일발사시험참관때 동족을 경멸한 발언을 한데 대해서는 저들의 《정책기조가 바뀐것은 아니다.》, 《우리측이 먼저 북을 자극할 의도는 없다.》고 변명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의 발언내용들을 보도하였다.

이와 함께 당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함께 초음속함미사일, 고위력탄도미사일개발성공, 고체추진체기술 확보 등을 9.19함의 3주년을 며칠 앞두고 공개한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평도 여러 차례 전하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도

악화된 남북사이의 현사태가 당국의 부적절하고 무모한 무기개발, 무력경쟁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고 한다.

각계층 주민들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처한 국면에서 당국이 부적절하게 새 무기개발을 공개하여 남북사이의 군비경쟁을 조장하였다고, 당국의 국방정책은 9.19군사합의와 모순될 뿐 아니라 군비경쟁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제가 있었지만도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작전계획에 따라 상명하복하는 처지에서 탄도미사일을 개발해봐야 무엇하겠는가.》라고 하면서 《한미동맹》이 없으면 망한다는 고정관념으로 미국의 거수기노릇만 하는 당국을 비난하고 조소하였다.

본사기자 김정혁

《마스크뒤에 감춰진 위태로운 거품경제》

세계를 휩쓸고있는 《COVID-19》사태는 남조선경제에도 심대한 해일로 들이닥치고있다.

남조선잡지 《월간중앙》이 전한 경제상황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분석평가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우선 채무규모가 급격히 증대되었다고 한다.

2021년 상반기에 저소득층 가정 60%이상이 수입이 조락하여 빚이 늘어나고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은 열악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2020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은행에서 대출한 총액은 2019년에 비해 18.8%나 증가하여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한다.

《국가채무》도 2019년에 37.7%였던것이 2020년에는 43.9%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가계부채증가와 물가폭등으로 인플레이션까지 나타

나는 등 재정의 불안정성이 날로 높아지고있다고 한다.

경제체제로 하여 지난 2년 간 들어온 외자의 5배가 넘는 외자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언론은 전하였다.

이러한 경제침체는 기업법, 산업법, 세법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촉진시키고있다.

자영업자들의 실태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남조선의 여러 대기업들은 영입률이 늘어난 반면에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빚

## 팽창되는 무기고, 악화되는 생활고

남조선에서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의 대유행으로 하여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있으며 그로 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살자들도 날로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도란에 빠져 허우적이는 민생을 외면하고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낭진하며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전쟁연습과 무기개발에 열을 올리고있어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은 당국이 올해 들어와서만도 국방예산과 남조선경쟁 미군

유지비를 사상최대로 늘였으며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침략전쟁연습에 막대한 자금을 퍼부은데 대해 보도하였다.

스텔스전투기, 고고도무인정찰기를 비롯하여 남조선당국이 첨단무기구입에만 소비한 액수는 한해 평균 약 5억 3 000만US\$로서 세계적으로 7번째에 속한다고 한다.

한편 각종 미사일, 비행기, 잠수함을 비롯한 최신무장장비개발에 대한 투자도 날로 늘어만 가고있다고 한다.

언론들은 특히 2022년도 국방예산안에서는 국방연구

및 개발분야에산을 올해보다 12.8% 증가한 약 42억 5 000만US\$의 자금을 지출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스스로 부정하고 군사적진장을 격화시키는 우매한 짓으로 된다고 평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 《경향신문》, 《뉴스1》 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미국이 지난 15일 영국, 오스트랄리아와 함께 인디아 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안보동맹인 《오커스》를 출범하기로 하였다. 미국이 세 나

와 함께 기밀정보공유동맹체인 《화이트 아이즈》결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인디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정보동맹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해양안보동맹체인 《오커스》를 출범시켜 중국을 본격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최근 미하원에서 《화이트 아

## 선거경쟁인가 선거전쟁인가

이 땅을 뜨겁게 달구던 폭염도 물러 갈등과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있는가고 어느덧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 남조선정국의 열기는 더욱더욱 달아오르고있다. 그러나 권력야심가들의 르고있다.

장계임의혹, 검찰의 장모대응문건작성의혹 등 실체를 알수없는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정국이 검은 구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라고 전하였다.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여당후보의 그 무슨 대장동맹개발의혹이라는것을 들고고나와 여야간의 양상이니 전투구의 양상으로 번져지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남조선정국이 《이번 선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싸움군을 뽑는 선거》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이다.

## 《싸움군을 뽑는 선거》

앞으로 있게 될 《대선》에 여당의 재집권이나,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나 하는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인것으로 하여 여야는 상대방을 물어메치기 위한 필사적인 선거싸움을 벌이고있다.

최근에는 윤석열의 선거개입의혹사건과 리재명의 대장동맹개발의혹으로 맞불질이 한창이다.

여당은 여전히 《검찰과 야당이 유착된 선거개입사건》

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부정부패》로 몰아가고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정보원이 있다는 《정보원 대선개입》론을 내놓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고발사주의혹으로 시작된 정치권 공방이 정보원대선개입의혹으로 전선이 확장되면서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사주의혹과 정보원 원

조지고있다.

얼마전에 있는 토론회에서 도 홍준표는 윤석열을 《보수계열의 장본인》, 《현 정권의 앞잡이》라고 사정없이 공격하였다고 한다.

《무야홍》(무조건 야권후보는 홍준표)이라고 자처하며 기세를 올리고있는 홍준표는 윤석열의 고발사주의혹이 터지자 때를 만난듯이 후보사퇴를 주장하며 물고늘어

## 《돌고래》나 《무야홍》이냐

남조선 여야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붙여 들어가는 오명이 있다.

바로 《배신자》, 《변절자》라는 딱지다.

특히 《국민의힘》후보들인 홍준표와 류승민은 보수세력들로부터 《위기에 처한 당을 분열시킨 역적》, 《박근혜를

권력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체모도, 정경의 명색도 다 제버리는 시정배들에게 남조선인심은 환멸과 비난의 침

을 찾았지만 《배신자는 물러가라》는 구유보수세력의 격렬한 항의에 불변한 당하고 돌아왔다.

서로가 《배신자》라고 깎아내리며 물고뜯는 희비극까지 벌어지는 판이다.

저 하나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 배신과 변절을 계절따라 웃갈아입듯이 해온자들이 남조선인민들앞에서 한 《공약》을 제대로 지킬수 있겠는지...

를 조장하는데 홍준표의 인물이 관여하였다며 반격에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의혹론이 야권 대권주자간 공방으로 옮겨붙고 있다. 여야간 선전전이 아닌 야권내부총동로 비화되고있다.》

남조선언론의 평은 《국민의힘》내부실태를 그대로 반영한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

권력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체모도, 정경의 명색도 다 제버리는 시정배들에게 남조선인심은 환멸과 비난의 침

을 뱉고있다.

남조선에서 그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충이 날이 갈수

## 《배신자》들의 선거경쟁

남조선 여야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붙여 들어가는 오명이 있다.

바로 《배신자》, 《변절자》라는 딱지다.

특히 《국민의힘》후보들인 홍준표와 류승민은 보수세력들로부터 《위기에 처한 당을 분열시킨 역적》, 《박근혜를

권력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체모도, 정경의 명색도 다 제버리는 시정배들에게 남조선인심은 환멸과 비난의 침

을 뱉고있다.

남조선에서 그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충이 날이 갈수

를 조장하는데 홍준표의 인물이 관여하였다며 반격에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의혹론이 야권 대권주자간 공방으로 옮겨붙고 있다. 여야간 선전전이 아닌 야권내부총동로 비화되고있다.》

남조선언론의 평은 《국민의힘》내부실태를 그대로 반영한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

권력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체모도, 정경의 명색도 다 제버리는 시정배들에게 남조선인심은 환멸과 비난의 침

을 뱉고있다.

남조선에서 그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충이 날이 갈수

## 단 평 공여지책

얼마전 남조선의 인터넷상에 현역군이 출연하여 군내내 식사절이 개선되어 TV국 《D.P.》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부패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한 동영상 하나가 화제가 되면서, 집단따돌림 등을 자아내고있다.

해당 동영상은 남조선군 홍보원이 지난년부터 진행한 현상응모에서 출품된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남조선군내에서 날로 우시해지는 폭력과 범죄행위에 대한 각계의 분노를 잠재우고 군내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식을 바꾸기 위해 공여지책으로 만들어졌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야말로 눈감고 아옹하는 격이라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 각계층이 오늘 남조선군 그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허가라는 인연유린자로 전락되었다고 하면서 《폭력은 군을 유지하는 기본수단》으로 되겠다. 비난한지는 이미 오래다.

남조선군부대장이 군내에

서 성행하는 폭력과 부패상을 담은 TV국과 관련하여 《과거고있다.》는 립장을 내놓은지 하루만에 해군의 한 합선에서 부부하던 일병이 사관들로부터의 구타와 폭언, 집단따돌림 등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육군의 한 부대에서 훈련중의 사병들에게 한심한 식사가 배식되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도 군부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은 고사하고 상황이 개선되고있는듯이 현실을 외면하고있으니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비단보자기로 감싼다고 구린내까지야 어떻게 감출수 있겠는가.

정신도덕적으로 부패라락하고 폭력이 없는 한시도 유지될수 없는 남조선군에서 나타나고있는 각종 범죄행위들은 고칠수 없는 병이라는것이 여론의 한결같은 평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최근 남조선당국이 갈등과 대립이 날로 격화되는 주변나라들사이에 끼워 끌려리를 앓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 《경향신문》, 《뉴스1》 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미국이 지난 15일 영국, 오스트랄리아와 함께 인디아 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안보동맹인 《오커스》를 출범하기로 하였다. 미국이 세 나

## 《샌드위치신세가 될수 있다》

라의 머리글자를 딴 《오커스》출범을 공식화할 때 《중국》이라는 단어는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커스》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동맹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다. 앞서 미국의회는 영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와 함께 기밀정보공유동맹체인 《화이트 아이즈》결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인디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정보동맹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해양안보동맹체인 《오커스》를 출범시켜 중국을 본격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최근 미하원에서 《화이트 아

이즈》에 남조선과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있다고 한다.》

《《한국》으로서 《동맹》인 미국과의 정상차원의 약속을 어길수 없고 《안보》는 물론 반도체, 5G, 백신 등 각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심화가 《국익》차원에서

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경제 의존도가 높고 협조가 필요한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감수할수 없다.

이로 인해 《한국》은 《한미관계는 바뀌처럼 굳건하다.》는 미국과 《핵심리익 상호존중》을 거론하며 중국 성찰을 하고있는 중국 정부사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할수 있다. 자칫 샌드위치신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본사기자